울림과 잠김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제 37 호 2023 년 1 월
소공동체지 편집부

반모임 순서

I. 성호경, 성가, 예수님 초대 기도
II. 묵상
  †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 복음 읽기
  † 말씀에 머물기
  † 말씀의 울림
  † 말씀에 잠김
III. 생명말씀 및 실천사항 정하기
IV. 건의사항 및 공지사항
V. 소공동체 기도문
VI. 마침 성가

묵상 길라잡이

■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 마음 열기
- 복음 말씀을 천천히 두 번 읽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지 집중하여 듣습니다.

■ 말씀에 머물기
-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구절을 적은 뒤 “이것이 오늘 나의 어느 부분에 다가왔는지” 에 대해 묵상합니다.

■ 묵상과 말씀의 울림 나누기
- 묵상한 부분을 형제자매님들과 나누어 봅니다. <말씀의 울림>을 참고로 하셔도 됩니다.

■ 말씀에 잠김
- 본당 교우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누고픈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빛이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아드님을 보내셨으니,
그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몸이 되신 말씀이옵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을 제 위에 보내시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옵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어,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의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소공동체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였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 그때에 29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30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31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33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34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말씀의 울림

- 29 절: “세상의 죄”
  ("the sin of the world”)
  내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묵상해봅시다.

- 31 절: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He might be made known to Israel.”)
  세례를 통해 얻은 복음 선포의 사명에 대한 나의 체험이나 생각을 나눠봅시다.

말씀에 잠김

30 절: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He is the one of whom I said, ‘A man is coming afer me who ranks ahead of me because he existed before me.’”)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적 그곳이 세상 전부라고 믿고 살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집에서는 늦둥이로 자라온 덕에 지금 생각하면 철부지 같았던 시절이 조금 오래 가기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얻을 수 있었고 성질을 부려도 뭐든 받아주는 오빠들이 있었고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로 일을 만들어서 벌리는 일에 집중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손발이 잘 맞는 깨복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는 제가 벌려 놓은 일에 늘 함께해 주었고 귀찮은 뒷정리까지 알아서 해 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변의 관심이 그 친구에게 쏠리며 뭔지 모를 질투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같이 있으면 답답한 마음이 들고 괜히 화가 나고 그 친구를 경계했었던 부끄러운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몇 해 만에 만나도 어제 봤던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나눌 수 있는 친자매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여전히 고향에 머무르며 주님께서 주신 역할을 성실히 해내고 있는 충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명성이 높아지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상황에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춤으로 뒤에 오시는 주님을 크게 높이는 것에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겸손을 묵상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손에 있는 것조차 주님의 뜻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눔 메모

1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5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36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37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38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39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말씀의 울림

- 35 절: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Light your lamps.”)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으로 내 주위를 밝히는 등불을 켜는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 36 절: “기다리는 사람”
  (“servants who await”)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준비는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말씀에 잠김

37 절: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Amen, I say to you, he will gird himself, have them recline at table, and proceed to wait on them.”)

주인과 종 관계에서 보통 주인은 종을 부리고 종은 그 부림을 당합니다. 설사 그 주인의 부림이 종이 생각하기에 합당치 않더라도 종은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복음에서 주인은 혼인 잔치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혼인 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인을 위해 종들은 깨어 있으며 준비하고 있었겠지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행위는 ‘깨어 있음’이었습니다. 이런 종들의 가장 일차적인 행위를 보고 주인은 자기가 돌아왔을 때 깨어 있는 종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에 가서 시중을 듭니다. 종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것뿐인데도 이 착한 주인은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하여 음식을 주고 충분히, 불편함 없이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곁에서’ 시중을 듭니다. 주인의 이런 선한 모습을 보며 종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이 주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더 주인께 잘해드리리라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혼인 잔치의 기쁨을 비천한 종들과 나누는 이 착한 주인을 보며 사랑 많은 하느님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사실 종들이 아무리 잘하려 해도 종들을 부리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들의 부족함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인은 그런 종들의 부족함은 보지 않고 그저 자기를 기다리며 깨어 있는 종들을 어여삐 보고 그들을 위해 식탁을 마련합니다. 그것도 그냥 “맛있게 먹어라.” 하면 될 것을 곁에서 직접 시중을 듭니다.

사랑 많고, 이 겸손한 주인이 바로 제게는 하느님이셨습니다! 저의 부족함보다도 저의 당신을 향한 ‘기다림’ 하나 만으로도 감동 받으시고 충분하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감히 하느님의 시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곁에서 당신의 너그러우심으로 저를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하느님!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며 저 또한 이 선하신 하느님께 저절로 더 큰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느님, 나의 주여! 제가 당신의 크신 사랑을 더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총 허락하소서. 저는 종으로써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당신께서 사랑 가득한 자리에 초대하셔서 함께 해주시니 제 마음엔 감사함과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제가 당신께 더 맞갖은 종의 모습으로, 더 충실한 종의 모습으로 나의 주인이신 하느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아멘

함께 나누는 이야기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김은숙 데레사

지난여름에 한국으로 출발해서 가을에 돌아왔습니다. 이민 생활 20 년에 14 일 이상 한국에 머문 적이 없는 저에게 80 일간의 한국 체류는 큰 프로젝트이며, 한편으로는 가슴 설레는 이벤트였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의 여행에서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먼저, 저의 어머니, 83 세의 노모께 세례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불교 신자로 평생을 사셨던 어머니께서 출국 일주일 전에 제가 오면 성당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반신반의. 그런데 입국한 지 3 일째 되던 날에 산책나갔다가 어머니께 이끌려 근처 성당에 갔었고, 그다음 날에 주일 미사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미사 중에 새 신자 세례식을 보게 되셨고, 미사 후 자연스레 어머니는 예비자 교리 반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따님이 전교하셨나는 신부님의 물음에 어머니께서는 당신 마음공부에 실패하신 것 같아 이제는 하느님을 믿으며 죽음을 준비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비자 교리 공부가 시작되고, 매일 묵주기도를 함께 하고, 평화방송을 시청하고, 나누는 대화 속에 신앙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거실에는 십자가 고상이, 혼자 주무시는 어머니 침실에는 아름다우신 성모님 상이, 침대 곁과 거실 탁자에는 묵주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움이 되고자 교리 책을 줄 그어가며 읽고, 여행 중에도 주일을 다 지킬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께서는 제가 출국하기 5 일 전, 평일 저녁 미사에서 엘리사벳으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신자가 아닌 친정에, 더구나 혼자 사시는 노모의 신앙생활 시작을 선교부장님과 구역장님께 거듭 부탁드린다는 말씀만 남기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늘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실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 저절로 든든함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저의 기도 내용이었던 어머니의 세례성사를 기적같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둘째, COVID 기간을 지내면서 제게서 메말라 가고 있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민 후 캐나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한국 주보에 쏟아지는 교육과 피정, 각종 모임공고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성령묵상회를 다녀왔습니다. 신기하게 어머니 집에서 20 분 거리에 서울 삼성산 피정집이 있었습니다.

2018 년 이후, 4 년 만에 참가하는 묵상회에서는 제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어둠의 실체와 직면하게 하시고, 풀어나 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뜨거운 눈물로 맞이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Working Mom 으로 살았던 지난 30 년의 회한, 자식을 30 년 키워 결혼해서 떠나보내는 기쁘고도 허전한 마음, 부모님 곁을 떠난 이민 생활 20 년의 죄송함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셋째,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리웠던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시집과 친정집을 오가며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오기 바빴던 20 년 세월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10 년 후 든, 20 년 후 든 만나서 실컷 시간을 함께해 보자고 약속했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며 가끔 혼자서 인사하던 친구들이 몇 년 만이라도 전화 목소리만 듣고도 반가워했습니다. 태풍 온다는 비도 함께 맞으며, 울긋불긋 뒹구는 낙엽도 함께 밟으며, 거리에서 연주하는 음악도 듣고, 윤동주 문학관도 찾아 가면서 우리는 어릴 적 우리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이었던 중학교의 초임 교사 친구와는 밤새 그 당시 학교 졸업앨범을 꺼내 놓고 지금은 50 살쯤 되었을 그 까까머리 소년들 사진을 보며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한 어릴 적 친구는 60 이 다 되어 20 년 만에 찾아온 나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서 대접하며 그간의 각자 인생을 꾸려온 우리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서로 위로하며 축하했습니다.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 세월을 말하지 않아도 다독거려주는 깊은 우정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이 귀하디 귀란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은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집을 떠난 저는 지금 여기 미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30 년 전 출산 때 어머니께서 2 달 산후조리를 해 주셨고, 미국 이주 때에 어머니께서 5 주 방문하신 게 함께 한 제일 긴 시간이었습니다. 80 세가 지나 건강을 예측할 수 없는 어머니와 80 일 살기는 매일 오늘은 무슨 일로 추억을 만들까 하고 궁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속도가 느린 생활 리듬에 제가 맞추어야 했고, 매번 반복하는 말씀도 참으며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함께 늙어가는 딸이 있어 좋겠다는 어느 택시기사의 말씀에 그렇다고 하시며 맞장구를 치며 좋아하셨습니다.

기차를 타고 경상도로 전라도로 1 일 관광을 단둘이서 떠나고, 가족들과 강원도로 충청도로 주말여행을 하고, 주중에는 지하철을 타고 하루 서울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불편하신 다리와 허리로 앉았다, 쉬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칼국수도 먹고, 빈대떡도 먹고, 보리밥도 함께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정이 없는 날에는 함께 동네 산책도 하고, 햇살 좋은 벤치에서 쉬기도 하고, 드라마도 함께 보며 좋아했습니다. 멀리 사는 큰 딸이랑 해 보고 싶었던 일 들을 한꺼번에 다 해 본다고 좋아하셨고, 저 또한 어머니 옆에서 호강을 누리다 돌아왔습니다. 이럴 때가 언제일까, 오기는 올까 했던 오래된 바람이 어느새 저에게 이루어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을 계기로 저는 이렇게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조바심을 내지 않고 믿고 기다리면 그때는 반드시 오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동네방네 메아리

- NV2: 지난 4 년간 함께 해온 NV2 반의 마지막 반모임은 사정상 석 달 만에 가진 터라 더욱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만, 현재 반원으로서는 마지막 모임이어서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각자 새로운 반에 가서도 열심히 활동하자고 "화이팅!"을 외치며 반모임을 끝냈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 가득하시길 그리고 둘째 아이 출산이 임박한 토마스 아퀴나스&모니카 가정에 주님의 보살핌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 NV4: 하느님의 초대에 나는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성탄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다 함께 묵상해 봅니다.
- RC3: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 RC4: 12 월을 맞이하여 다가오는 성탄 의미를 묵상하며, 뜻깊은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결의하였습니다.
- TR1 : 송년회 겸 12 월 반모임을 게임과 더불어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이 반이 재편성될 것이므로 그동안 타 반에 소속되어 뵙지 못했던 교우님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자주 반편성이 바뀌어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과 친교를 나누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TR4 : 그동안 함께하여 감사했습니다. 옥재진 마르코 가정과 김민우 가브리엘 가정의 한국으로 귀국을 축하드리며,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4 년 동안 TR4 반의 활동을 되돌아봅니다. 반모임 동안 친목이 최고로 좋았으며, 함께 나누는 묵상과 생활 나눔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소공동체였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며,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1. 냉담 교우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와 나눔 실천하기
2.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각자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기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주최)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주최)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문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standrewkimdet@gmail.com